

##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프로파일과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련성 검증

이 주 영<sup>†</sup>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 절차를 활용하여 유아의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와 관련되는 다양한 유형의 유아-어머니 기질 패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 28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유아의 어머니가 유아의 기질과 문제행동, 그리고 본인의 기질에 대해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모두에 대해 “낮은 수준의 문제 집단”, “평균 수준의 문제 집단”, “경미한 수준의 문제 집단”, “심각한 수준의 문제 집단”의 4개의 잠재계층이 확인되었다. 심각한 수준의 내재화 문제 집단에 속한 유아들은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높았으며, 어머니는 자극추구 기질이 높았다. 또한, 심각한 수준의 외현화 문제 집단에 속한 유아들은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이 높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이 낮았으며, 어머니는 위험회피 기질이 높았다. 본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취약성으로 작용하는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프로파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그에 따른 예방적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유아 기질, 어머니 기질,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잠재 프로파일 분석

---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주영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60  
Tel : 02-940-4498 / Fax : 02-940-4490 / E-mail : jylee7694@dongduk.ac.kr

유아기에는 언어, 인지, 운동, 사회성 등의 심리사회적 발달이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들은 일시적으로 적응상의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정적인 모습을 찾게 된다. 하지만 유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적응상의 문제 혹은 다양한 문제행동들이 유아기 이후까지 지속되기도 하며(Shaw, Winslow, & Flanagan, 1999), 유아기의 심각한 문제행동은 아동기 이후의 심리적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Mesman & Koot, 2001). 또한, 유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심리적 문제들보다 예후가 훨씬 좋지 않으며 만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sh & Wolfe, 2002). 국내 지역사회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전체 유아의 6-13% 정도가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따라서 유아기의 문제행동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만 간주해서는 안 되며 그와 관련되는 다양한 개인의 내·외적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변인들은 수없이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유아의 기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질이란 생물학적인 기반을 가진 개인의 정서, 행동 스타일로 시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정의된다(Rothbart & Bates, 1998). 물론, 기질이 개인의 안정적인 특성이라는 가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연구들도 있지만(Partridge & Lerner, 2007), 이들의 주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질의 표현 양식이 발달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어서 표현형(phenotype)을 넘어서는 유전형(genotype)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Thomas와 Chess(1977)는 기질의 9가지 요인을 설정한 후 3가지 유형의 기질을 개념화하였는데, 그 중에서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temperament)”은 유아의 정서 및 행동 문제의 위험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Chess & Thomas, 1996). 기질의 신경생물학적 기반에 관해 연구해 온 Cloninger(1987, 2004)는 기질을 ‘다양한 환경 자극 유형에 대한 반응에 관여하는 적응 체계에서의 개인차’라고 정의하며, 다음의 네 가지 기질 차원을 확인하였다: 자극추구(novelty seeking: 새로운 자극에 의해 행동이 활성화되는 경향), 위험회피(harm avoidance: 위험한 자극에 의해 행동이 억제되는 경향),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사회적 보상 신호에 대한 민감성), 인내력(persistence: 지속적인 강화 없이도 행동을 지속하는 경향). Cloninger의 기질 차원을 활용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높은 자극추구 성향이 외현화 문제와 관련되고 높은 위험회피 성향은 내재화 문제들과 관련됨을 보여주었다(Ruchkin, Eisemann, & Cloninger, 1998; Luby, Svrakic, McCallum, Przybeck, & Cloninger, 1999; Schneck & Poustka, 2001). 국내에서 유아의 기질과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강지현(2009)은 유아의 높은 자극추구 및 위험회피 기질이 외현화와 내재화 문제행동의 고위험 경로를 예측하는 변인임을 보여주었으며, 이정숙과 문보경(2010)의 연구에서는 자극추구 기질이 어머니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방략에 의해 부분 매개되어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여아의 경우에만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에 의해 완전 매개되어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같은 연구에서 외현화 문제에 대해서는 자극추구 기질이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

에 의해 부분 매개되었으며, 인내력 기질은 남아의 경우에만 어머니의 부적응적 방략에 의해 완전 매개되었다. 또한, 박진아, 이경숙, 신의진(2008)의 연구에 따르면, 외현화 장애 유아의 경우 어머니가 반응적이지 못한 경우에만 유아의 자극추구 기질이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쳤으며, 내재화 장애 유아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침해적일 때만 유아의 위험회피 기질이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유아의 타고난 기질적 특성은 다양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유아의 기질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 특히 양육자의 변인들에 의해 그 영향력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아에게 있어 어머니로 대표되는 양육자는 유아의 가장 중요한 인적 환경이자 일차적인 사회화자이다(장유진, 이강이, 2011). Chess와 Thomas(1996)는 개인이 타고난 특징은 그들이 속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되고 표현된다고 보았다. 즉, 타고난 기질이 까다롭더라도 그러한 기질이 충분히 수용되는 환경에서는 기질적인 까다로움으로 인한 적응상의 문제가 덜 하고, 쉬운 기질의 유아라도 본인에게 주어지는 환경적 요구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유아의 인적 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인 어머니의 특성은 유아의 기질과 더불어 문제행동의 최초 발생과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부모의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 중 특별히 부모의 기질이나 성격이 단독으로 아동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연구들은 적지만(Nigg &

Hinshaw, 1998; Warner, Morey, Finch, Gunderson, Skodol, Sanislow, Shea, McGlashan, & Grilo, 2004),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기질간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적응과 관련이 높다는 결과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다(Rettew, Stanger, McKee, Doyle, & Hudziak, 2006; 허미경, 이소은, 2010). Buss와 Plomin(1984)은 아동의 기질 자체보다 어머니와의 기질 조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들에 따르면 부모와 아동의 사회성과 활동성이 모두 높을 때 조화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부모자녀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Galambos와 Turner(1999)는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적응성과 활동성 기질에서의 조화 정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갈등은 적응성이 낮은 어머니와 활동성이 낮은 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높았고 어머니와 딸 사이의 갈등은 적응성이 낮은 어머니와 활동성이 높은 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아버지와 딸 사이의 갈등은 적응성이 낮은 아버지와 적응성이 낮은 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Cloninger(1987, 2004)의 기질 차원을 아동과 어머니에게 모두 적용한 Rettew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과 어머니가 모두 자극추구 특성이 강할 때 아동의 주의력 문제가 많았으며 아동과 어머니가 모두 위험회피 특성이 강할 때는 아동의 내재화 문제를 증가시켰다. 국내에서도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을 평가한 연구에서 유아와 어머니 모두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온정/애정적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진, 이주영, 문경주, 권정혜, 2010).

Cloninger의 기질 모델에서는 성격 발달에 유리한 기질과 취약한 기질을 제안하고 있는데,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사

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성향이 낮을수록 성격 발달이 불리하며, 반대로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성향이 낮을수록,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성향이 높을수록 성격 발달에 유리하다 (Cloninger, Przybeck, Svrakic, & Wetzel, 1994;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박현진 등(2010)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제안이 부분적으로 검증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을 평가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유아의 기질 점수와 어머니의 기질 점수를 각기 따로 산출한 다음 두 점수를 임의의 절단점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조합을 만들거나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점수를 곱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왔다. 또한, 유아와 어머니의 조화적합성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유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를 별도로 측정하여 그러한 요구도에서 유아의 기질 점수를 뺀 조화적합성 점수를 사용하고 있다(서주현, 2009; 장유진, 이강이, 2011; 허미경, 이소은, 2010). 이러한 분석 방법들은 모두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이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문제행동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에는 충분하지만 구체적으로 유아와 어머니의 어떠한 기질 프로파일이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적용하여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프로파일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집단 내의 이질성(heterogeneity)에 관심을 갖는 개인-중심 접근(person-oriented approach) 방법으로서(Muthen & Muthen, 2000), 이러한 방법은 집단 내에 존재하는 질적으로 다른 여러

개의 하위집단 또는 잠재계층(latent class)을 발견해내는데 매우 유용하다(Muthen, 2004). 최근에는 이러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이 실제로 유아 및 아동의 기질 패턴을 확인하는데 활용되고 있다(Loken, 2004). 일례로, van den Akker, Dekovic, Prinzie와 Asscher(2010)의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성, 분노 경향성, 활동성 기질에 근거하여 ‘전형적인(typical)’ 프로파일, ‘표현적인(expressive)’ 프로파일, ‘두려워하는(fearful)’ 프로파일의 세 가지 기질 프로파일을 확인하였으며, Rettew, Althoff, Dumenci, Ayer와 Hudziak(2008)은 Cloninger의 4가지 기질 차원을 학령기 아동들에게 평가하여 ‘취약한(disengaged)’, ‘평균적인(moderate)’, ‘꾸준한(steady)’ 기질 프로파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와 관련되는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적 특성을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하여 여러 잠재계층으로 분류해보고, 그 중에서 특히 높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함께 관찰되는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프로파일은 어떠한 양상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기존 연구들에서처럼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이 모두 유아의 문제행동 발생과 유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질적 양상이 문제행동과 관련되는지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어머니가 모두 취약한 기질 특성을 보일 때, 즉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성향이 높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성향은 낮은 경우,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프로파일을 확인함으로써 취약한 기질을 가진 유아와 어머니에게 필요한 예방적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기질 및 성격검사-유아용(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의 표준화를 위해 수집된 타당화 자료의 일부를 분석하였다.<sup>1)</sup> 서울, 부산, 경남 지역의 1개 어린이집과 4개 유치원에 재원중인 286명의 유아가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모든 설문은 연구 대상 유아의 주양육자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총 286명의 유아 중 4명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설문을 작성하여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상은 남아 154명과 여아 128명, 총 282명이었다.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남아의 경우 5.03세( $SD=.95$ ), 여아의 경우 5.12세( $SD=.88$ )였다. 또한, 설문을 실시한 주양육자인 어머니 282명의 평균 연령은 34.51세( $SD=3.28$ )였다.

### 측정 도구

#### 기질 및 성격검사-유아용(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3-6: JTCI 3-6).

유아의 기질을 평가하기 위해 JTCI 3-6을

1) 본 연구에서는 ㈜마음사랑의 승인을 받은 기질 및 성격검사-유아용(JTCI 3-6)의 표준화 자료를 사용하였음.

사용하였다. JTCI 3-6은 Cloninger 등(1994)의 모델에 근거하여 개발된 미국의 유아용 TCI (Preschool TCI: Constantino, Cloninger, Clarke, Hashemi, & Przybeck, 2002)를 기초로 Goth, Cloninger와 Schmeck(2003a)이 개발한 독일판 검사를 (주)마음사랑에서 표준화한 검사이다(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JTCI 3-6은 총 86문항으로, 평가 대상인 유아의 주양육자가 유아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검사는 4가지 기질 차원(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과 3가지 성격 차원(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을 평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4가지 기질 차원 점수만을 사용하였다. 4가지 기질 차원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표준화 자료 전체에서 각각 .87(자극추구), .83(위험회피), .76(사회적 민감성), .82(인내력)였다.

각 기질 차원이 높고 낮을 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극추구 기질이 높은 사람은 새롭고 낯선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흥분을 느끼고, 충동적이고 성질이 급하며, 질서에 엄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함을 추구한다. 반대로 자극추구 기질이 낮은 사람은 매사에 심사숙고하고 절제하며, 질서정연한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다음으로,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은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움이 많고 비판적이며, 대인관계에서도 수줍음이 많고 조심성이 많다. 그러나 위험회피 기질이 낮은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으며,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있으며, 낙관적이고 사교적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민감성 기질은 타인의 칭찬이나 애정과 같은 사회적 보상 신호나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하는데,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 감수성이 풍부하고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잘 형성한다. 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사람으로부터의 거절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낮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타인의 감정을 고려한 행동보다는 개인적인 이득을 고려한 행동을 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인내력 기질은 지속적인 강화가 없어도 한 번 시작된 행동을 꾸준히 지속하려는 성향을 반영하는데, 인내력 기질이 높은 사람은 끈기와 참을성이 많고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성공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한다. 반대로 인내력 기질이 낮은 사람은 끈기와 일관성이 부족하고 좌절과 피곤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하던 일도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 기질 및 성격검사-성인용(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Revised-Short: TCI-RS)

어머니의 기질을 평가하기 위해 TCI-RS를 사용하였다. TCI-RS는 미국의 TCI 개정판(TCI-R)을 Goth, Cloninger와 Schmeck(2003b)이 140문항의 단축형으로 개발한 독일판 검사를 (주)마음사랑에서 표준화한 검사이다(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TCI-RS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기질 및 성격검사는 유아용, 아동용, 청소년용, 성인용으로 나뉘는데 각 버전은 모두 동일한 개념의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TCI-RS는 JTCI 3-6과 마찬가지로 4가지 기질 차원(자극추구, 위협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과 3가지 성격 차원(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을 평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4가지 기질 차원 점수만을 사용하였다. 4가지 기질 차원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표준화 자료 전체에서 각각

.84(자극추구), .84(위협회피), .77(사회적 민감성), .85(인내력)였다. 각 기질 차원의 특성은 유아용 검사와 동일하다.

#### 유아행동평가척도-부모용(Child Behavior Checklist 1.5-5: CBCL 1.5-5)

유아의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Achenbach (1992)가 처음 제작하고 이후 개정 작업을 거친 CBCL 1.5-5(Achenbach & Rescorla, 2000)를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CBCL 1.5-5는 유아들이 보일 수 있는 주요 문제행동에 대한 7개의 증후군 척도(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와 단일 증후군으로 묶이지 않는 문항들을 포함하는 1개의 기타 척도, 증후군 척도들의 합으로 계산되는 내재화 척도(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와 외현화 척도(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문제행동 총점, 그리고 DSM 진단 체계를 반영하여 구성한 5개의 DSM 방식 척도(DSM 정서문제, DSM 불안문제, DSM 전반적 발달문제, DSM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 DSM 반항행동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척도와 외현화 척도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검사의 표준화 자료에서 내재화 척도와 외현화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각각 .87과 .89였다.

####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와 관련되는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프로파일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으며,

잠재계층을 확인하기 위한 측정변인(indicator)으로 유아의 기질 차원 점수 4개, 어머니의 기질 차원 점수 4개를 사용하였다. 내재화 문제에 대한 분석에서는 내재화 척도 점수를, 외현화 문제에 대한 분석에서는 외현화 척도 점수를 각각 추가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서는 잠재계층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모형의 적합도 비교를 통해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모형 비교를 실시하였다(Muthen & Muthen, 2000): (1) BIC와 Adj BIC: 값이 작을수록 더 나은 모형(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2) entropy: 잠재계층 분류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0.8 이상이면 좋은 분류(Muthen, 2004), (3)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BLRT): k개의 잠재계층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k-1개의 잠재계층 모형이 기각되는지를 평가하는데 이 검증에서 p값이 유의미하면 k개의 잠재계층 모형을 선택(McLachlan & Peel, 2000), (4) 이론적 해석 가능성: 선택된 모형에서의 잠재계층의 수가 얼마나 이론적으로 부합하는지와 해석 가능성. 본 연구는 이주영

과 오경자(2010) 연구의 분석 절차를 따랐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와 상관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였으며,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위해 Mplus 5.21(Muthen & Muthen, 1998-2009)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먼저,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점수와 유아의 문제행동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간의 상관 관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간의 상관을 먼저 살펴보면, 동일한 기질 차원에 대해서는 유아와 어머니의 상관이 모두 유의하였다(자극추구:  $r=.33, p<.01$ ; 위험회피:  $r=.33, p<.01$ ; 사회적 민감성:  $r=.15, p<.05$ ; 인내력:  $r=.34, p<.01$ ). 이 같은 결과는 기질이 다양한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표 1.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및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기술 통계

	유아 (n=282)	어머니 (n=282)	
기질	자극추구(Novelty Seeking: NS)	18.20 (9.07)	25.38 (9.05)
	위험회피(Harm Avoidance: HA)	23.87 (8.38)	36.41 (10.63)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RD)	24.31 (6.28)	44.13 (8.42)
	인내력(Persistence: P)	28.55 (6.92)	40.91 (9.37)
문제행동	내재화(Internalizing)	9.16 (6.74)	
	외현화(Externalizing)	8.57 (6.61)	해당없음

표 안은 평균, 괄호 안은 표준편차

표 2.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및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상관

		유아 기질 및 문제행동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어머니 기질	자극추구	.33**	.23**	.22**	-.11	.26**	.26**
	위험회피	.07	.33**	-.05	-.21**	.25**	.18**
	사회적 민감성	-.01	-.02	.15*	.12*	-.01	-.03
	인내력	.06	-.12	.26**	.34**	.03	.01
유아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	.32**	.61**	.07	-.18**		
	외현화 문제	.67**	.29**	-.02	-.31**		

\* $p < .05$ , \*\* $p < .01$

의 유전적 경향성이라는 Cloninger(1987)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다음으로,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상관 분석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재화 문제는 위험회피 기질과 가장 상관이 높았으며( $r = .61, p < .01$ ), 외현화 문제는 자극추구 기질과 가장 상관이 높았다( $r = .67, p < .01$ ). 하지만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모두 자극추구, 위험회피, 인내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즉, 유아가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성향이 강하고 인내력 성향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기질과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자극추구 성향과 위험회피 성향이 모두 유아의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와 비슷한 수준의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가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성향이 강할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은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상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유아의 내재화 문제는 유아의 자극추구, 위험회피,

인내력 기질 및 어머니의 자극추구, 위험회피 기질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유아 자신의 위험회피 기질과 가장 상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외현화 문제 역시 유아의 자극추구, 위험회피, 인내력 기질 및 어머니의 자극추구, 위험회피 기질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유아 자신의 자극추구 기질과 가장 상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극추구 기질과 위험회피 기질은 문제행동과 상관이 높은 취약한 기질 특성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 잠재계층의 수 결정**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된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패턴을 확인하고자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각각에 대한 최적의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계층의 수가 1개인 모형부터 5개인 모형까지를 구성하여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모형 비교의 결과를 표 3과 4에 제시하였다.

표 3. 잠재계층 모형의 적합도 비교: 내재화 문제

잠재계층의 수	1	2	3	4	5
log likelihood 값	-8873.81	-8810.55	-8753.61	-8725.78	-8705.11
entropy	N/A	.81	.73	.76	.80
BIC	17854.82	17784.72	17727.25	17728.00	17743.10
Adj BIC	17794.57	17692.76	17603.58	17572.63	17556.01
BLRT	N/A	126.52 <sup>***</sup>	113.90 <sup>***</sup>	55.66 <sup>***</sup>	41.32 <sup>***</sup>

N/A = 해당사항 없음. 해당 모형에서 값이 산출되지 않음.

<sup>\*\*\*</sup>  $p < .001$ .

표 4. 잠재계층 모형의 적합도 비교: 외현화 문제

잠재계층의 수	1	2	3	4	5
log likelihood 값	-8849.32	-8789.01	-8734.11	-8706.15	-8683.76
entropy	N/A	.61	.70	.75	.75
BIC	17805.84	17741.64	17688.25	17688.75	17700.39
Adj BIC	17745.59	17649.68	17564.58	17533.37	17513.30
BLRT	N/A	120.61 <sup>***</sup>	109.81 <sup>***</sup>	55.92 <sup>***</sup>	44.78 <sup>***</sup>

N/A = 해당사항 없음. 해당 모형에서 값이 산출되지 않음.

<sup>\*\*\*</sup>  $p < .001$ .

먼저, 내재화 문제에 대한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표 3을 보면, 잠재계층의 수가 5개인 모형이 Adj BIC값이 가장 작고 BLRT 검증 결과가 유의하였다. 하지만 BIC 값은 잠재계층의 수가 4개인 모형이 더 작았으며 이 모형 역시 BLRT 검증 결과가 유의하였다. entropy 값은 두 모형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잠재계층의 수가 4개인 모형과 5개인 모형 중 어떤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할지 결정하기 위해 각 모형 내에 속한 잠재계층들에서의 내재화 점수 평균을 살펴봄으로써 이론적 해석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잠재계층의 수가 5개인 모형의 경우, 5개 계층의 내재화 점수

평균이 6.06(126명), 10.25(111명), 25.32(10명), 17.38(22명), 3.11(13명)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 대상의 내재화 점수 평균이 9.16임을 감안할 때, 첫 번째 계층과 두 번째 계층이 모두 평균과 가까운 점수를 보였고 5개의 잠재계층 중에서 2개의 계층은 각각 10명과 13명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잠재계층의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외현화 문제에 대한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표 4를 보면 전체적인 양상이 내재화 문제에 대한 모형 비교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내재화 문제에 대한 최종 모형을 선택

할 때와 같은 절차로, 잠재계층이 4개인 모형과 5개인 모형 내에 속한 잠재계층들의 외현화 점수 평균을 살펴보았다. 잠재계층의 수가 5개인 모형의 경우, 5개 계층의 외현화 점수 평균이 4.34(98명), 7.29(102명), 3.91(9명), 20.04(30명), 14.01(43명)로 나타났다. 첫 번째 계층과 세 번째 계층의 외현화 점수 평균이 거의 유사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계층의 경우 전체 연구 대상 중 단 9명만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의 안정성이 의심되었다. 따라서 외현화 문제에 대해서도 잠재계층의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내재화 문제에 대한 4계층 모형

내재화 문제에 대한 최종 모형으로 결정된 4계층 모형의 결과를 표 5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각 계층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각 계층의 명칭은 내재화 문제의 수준에 따라 결정하였다. 첫 번째 계층은 내재화 문제 점수의 평균이 3.35로 다른 3개의 계층에 비해 현저하게 그 점수가 낮았으며,

전체 연구 대상의 평균(9.16)보다도 낮아 “낮은 수준의 문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계층에 속한 사례는 15명으로 전체 연구 대상의 5.32%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계층은 내재화 문제 점수의 평균이 6.73으로 전체 연구 대상의 평균과 1표준편차(6.74) 이내의 적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평균 수준의 문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특히, 이 계층은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차원 점수들이 전체 연구 대상의 평균과 매우 유사하였다. 이 계층에는 총 134명(47.52%)이 속하였다. 세 번째 계층은 내재화 문제 점수의 평균이 10.47로 전체 연구 대상의 평균보다 약간 높아 “경미한 수준의 문제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이 계층에는 총 108명(38.30%)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네 번째 계층은 내재화 문제 점수의 평균이 19.47로 가장 높아 “심각한 수준의 문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계층에는 25명(8.87%)이 포함되었다. 실제로 내재화 척도의 원점수 19는 국내 표준화 데이터에서 임상 범위(64T, 92%ile)에 속하는 높은 점수로(오경자, 김영아, 2009), “심각한 수준의 문제 집단”으로 명명된 잠재계층

표 5. 내재화 문제에 대한 4계층 모형: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및 내재화 점수의 평균

			유아					어머니				
			내재화 문제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전체 평균		9.16	18.20	23.87	24.31	28.55	25.38	36.41	44.13	40.91	
class1	낮은 수준의 문제 집단	15명 (5.32%)	3.35	12.37	13.81	27.91	37.21	25.92	17.72	51.15	56.08	
class2	평균 수준의 문제 집단	134명 (47.52%)	6.73	14.08	21.88	23.78	32.08	22.52	35.82	44.10	41.14	
class3	경미한 수준의 문제 집단	108명 (38.30%)	10.47	21.42	26.31	23.09	22.82	25.83	40.55	42.14	36.27	
class4	심각한 수준의 문제 집단	25명 (8.87%)	19.47	29.24	29.96	29.73	28.70	37.49	33.73	48.13	4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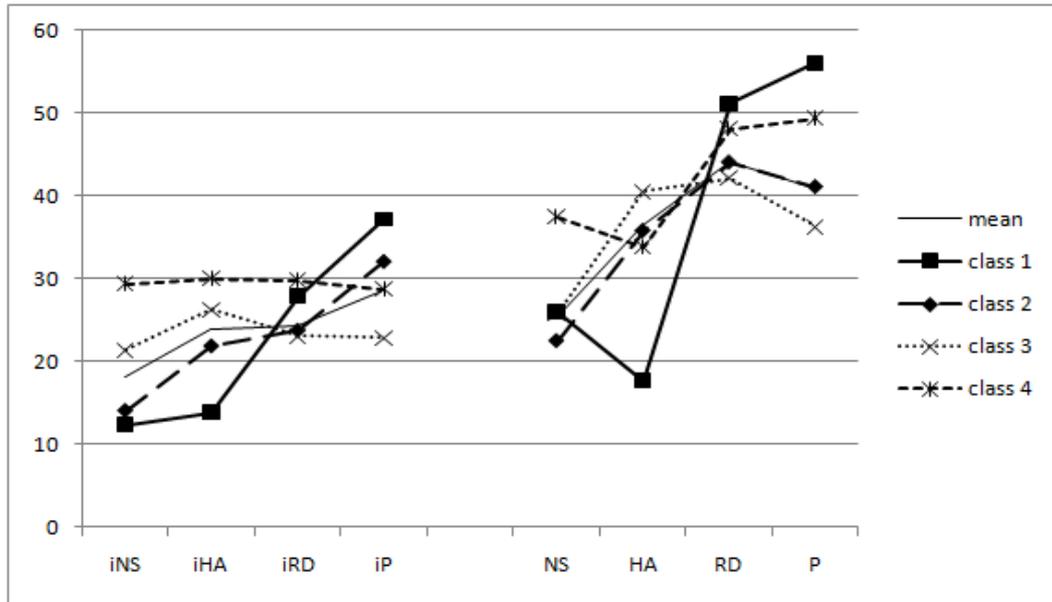


그림 1. 내재화 문제에 대한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프로파일: 4개 잠재계층

- 주 1) mean: 각 변인의 평균, class 1: 낮은 수준의 문제 집단, class 2: 평균 수준의 문제 집단, class 3: 경미한 수준의 문제 집단, class 4: 심각한 수준의 문제 집단  
 주 2) iNA: 유아의 자극추구, iHA: 유아의 위협회피, iRD: 유아의 사회적 민감성, iP: 유아의 인내력, NS: 어머니의 자극추구, HA: 어머니의 위협회피, RD: 어머니의 사회적 민감성, P: 어머니의 인내력

은 임상 집단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각 계층에서의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프로파일은 그림 1과 같다. 낮은 수준의 문제 집단의 경우, 유아는 자극추구와 위협회피 기질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가장 낮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역시 위협회피 기질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평균 수준의 문제 집단은 유아와 어머니 모두 각 기질 차원의 점수가 전체 평균과 매우 유사하였다. 경미한 수준의 문제 집단은 유아의 자극추구와 위협회피 기질이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았으며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았다. 어머니 역시 위협회피 기질이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수준의 문제 집단에서는 유아의 자극추구, 위협회피,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어머니는 자극추구 기질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 외현화 문제에 대한 4계층 모형

외현화 문제에 대한 최종 모형으로 결정된 4계층 모형의 결과를 표 6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각 계층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6. 외현화 문제에 대한 4계층 모형: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및 외현화 점수의 평균

			유아				어머니				
			외현화 문제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전체 평균		8.57	18.20	23.87	24.31	28.55	25.38	36.41	44.13	40.91
class1	낮은 수준의 문제 집단 (17.38%)	49명	4.14	12.44	17.02	25.42	34.91	22.51	25.99	49.41	47.54
class2	평균 수준의 문제 집단 (56.03%)	158명	6.21	15.55	24.13	23.50	28.03	23.29	39.24	41.83	38.00
class3	경미한 수준의 문제 집단 (10.99%)	31명	13.36	30.77	27.91	29.58	27.16	37.09	32.38	46.65	47.88
class4	심각한 수준의 문제 집단 (15.60%)	44명	18.58	24.87	28.01	21.88	23.85	27.28	41.83	44.12	38.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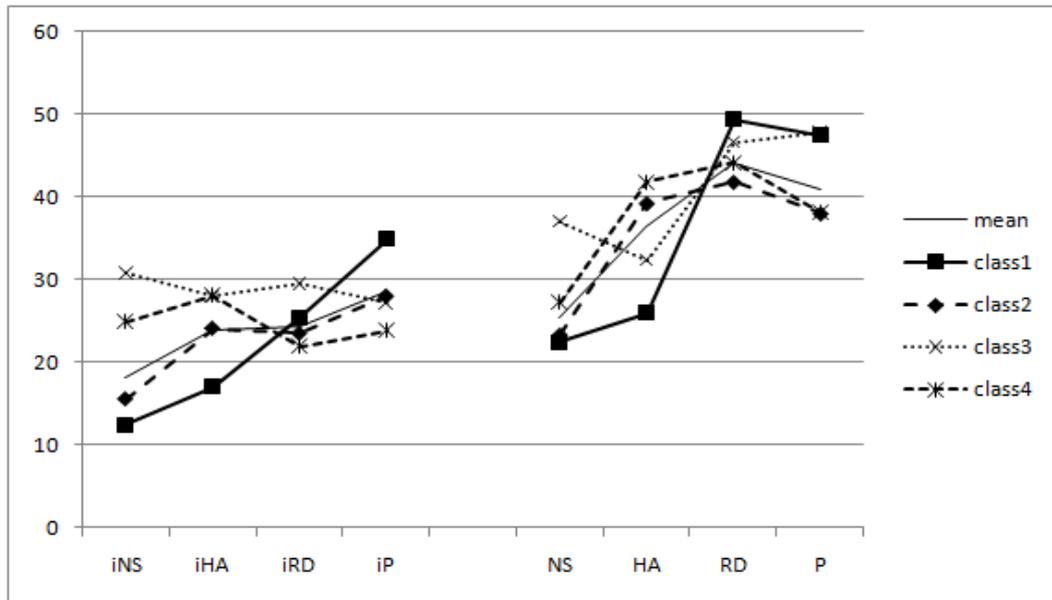


그림 2. 외현화 문제에 대한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프로파일: 4개 잠재계층

- 주 1) mean: 각 변인의 평균, class 1: 낮은 수준의 문제 집단, class 2: 평균 수준의 문제 집단, class 3: 경미한 수준의 문제 집단, class 4: 심각한 수준의 문제 집단
- 주 2) iNA: 유아의 자극추구, iHA: 유아의 위험회피, iRD: 유아의 사회적 민감성, iP: 유아의 인내력, NS: 어머니의 자극추구, HA: 어머니의 위험회피, RD: 어머니의 사회적 민감성, P: 어머니의 인내력

다음과 같으며 각 계층의 명칭은 외현화 문제의 수준에 따라 결정하였다. 첫 번째 계층은 외현화 문제 점수의 평균이 4.14로 다른 3개의 계층에 비해 그 점수가 낮았으며, 전체 연구 대상의 평균(8.57)보다도 낮아 “낮은 수준의 문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계층에 속한 사례는 49명으로 전체 연구 대상의 17.38%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계층은 외현화 문제 점수의 평균이 6.21로 전체 연구 대상의 평균과 유사하여 “평균 수준의 문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계층은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차원 점수들도 전체 연구 대상의 평균과 매우 유사하였다. 이 계층에는 총 158명(56.03%)이 속하였다. 세 번째 계층은 외현화 문제 점수의 평균이 13.36으로 전체 연구 대상의 평균보다 높아 “경미한 수준의 문제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이 계층에는 총 31명(10.99%)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네 번째 계층은 외현화 문제 점수의 평균이 18.58로 가장 높아 “심각한 수준의 문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계층에는 44명(15.60%)이 포함되었다. 실제로 외현화 척도의 원점수 18은 국내 표준화 데이터에서 임상 범위(64T, 92%ile)에 속하는 높은 점수로(오경자, 김영아, 2009), “심각한 수준의 문제 집단”으로 명명된 잠재계층은 임상 집단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각 계층에서의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프로파일은 그림 2와 같다. 낮은 수준의 문제 집단의 경우, 유아와 어머니 모두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가장 낮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모두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문제 집단은 유아와 어머니가 동일하게 낮은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높은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Cloninger가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성향이 낮을수록,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성향이 높을수록 성격 발달에 유리하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Cloninger, Przybeck, Svrakic, & Wetzel, 1994;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평균 수준의 문제 집단은 유아와 어머니 모두 각 기질 차원의 점수가 전체 평균과 매우 유사하였다. 경미한 수준의 문제 집단은 유아와 어머니 모두 자극추구 기질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으나 유아의 경우 사회적 민감성이, 어머니의 경우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수준의 문제 집단에서는 유아와 어머니 모두 위험회피 기질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유아의 경우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하여 유아의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와 관련된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프로파일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높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함께 관찰되는 기질 프로파일은 어떠한 양상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loninger 등(1994)의 주장에 따라 유아와 어머니가 모두 취약한 기질 특성을 보일 때, 즉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성향이 높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성향이 낮은 경우에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먼저,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차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동일한 기질 차원에 대

해서는 유아와 어머니의 상관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질이 다양한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유전적” 경향성이라는 Cloninger(1987)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었다. 즉, 유아는 어머니의 기질과 매우 유사한 기질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유아의 기질을 어머니가 평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기질적 성향이 자녀에 대한 평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아 및 어머니의 기질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모두 유아의 자극추구, 위협회피, 인내력 기질 및 어머니의 자극추구, 위협회피 기질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특히, 내재화 문제는 유아 자신의 위협회피 기질과 가장 상관이 높았으며, 외현화 문제는 유아 자신의 자극추구 기질과 가장 상관이 높았다. 이는 높은 자극추구 성향은 외현화 문제와 관련되고 높은 위협회피 성향은 내재화 문제와 관련됨을 보여준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Ruchkin, Eisemann, & Cloninger, 1998; Luby, Svrakic, McCallum, Przybeck, & Cloninger, 1999; Schmeck & Poustka, 2001). 전반적으로 볼 때, 자극추구 기질과 위협회피 기질은 문제행동과 상관이 높은 취약한 기질 특성임을 짐작해볼 수 있으며, 이는 유아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와 관련되는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프로파일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모두에 대해서 4계층 모형이 가장 적합하였다. 두 가지 문제 모두 ‘낮은 수준의 문제 집단’, ‘평균 수준의 문제 집단’, ‘경미한 수준

의 문제 집단’, ‘심각한 수준의 문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낮은 수준의 문제 집단과 평균 수준의 문제 집단은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서 비슷한 기질 프로파일을 보였다.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낮은 수준의 문제 집단의 경우, 유아와 어머니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자극추구와 위협회피 기질이 낮았으며,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은 높았다. 이는 Cloninger가 자극추구와 위협회피 성향이 낮을수록,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성향이 높을수록 성격 발달에 유리하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Cloninger, Przybeck, Svrakic, & Wetzel, 1994;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Rettew 등(2008)의 연구에서도 낮은 자극추구와 위협회피, 높은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을 특징으로 한 ‘꾸준한(steady)’ 유형의 기질 프로파일을 가진 아동들이 가장 낮은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보였다. 자극추구와 위협회피 성향이 모두 낮은 유아는 쉽게 흥분하거나 위축되지 않으며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 일상생활에서 유쾌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유아들은 환경적 조건과 상관없이 적응에 매우 유리할 수 있으며, 어머니 역시 이러한 성향을 지닌 경우 양육 과정에서 보다 좌절을 잘 견디고 분명한 규칙을 선호하며 갈등 상황 속에서 침착하고 낙관적인 모습을 보여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현진, 이주영, 문경주, 권정혜, 2010). 한편, 유아와 어머니가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이 모두 높을 경우, 서로 온정적이고 따뜻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고 다양한 환경적 도전에도 꾸준히 성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유아와 어머니의 높은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은 유아를 문제

행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기질적 특성이  
라 사료된다. 요약하면, 유아와 어머니가 모두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이 낮고 사회적 민  
감성과 인내력 기질이 높은 것은 다양한 문제  
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미한 수준의 문제 집단’과 ‘심각한  
수준의 문제 집단’으로 분류된 계층은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서 다소 다른 양상의 기  
질 프로파일을 나타냈다. 먼저, 내재화 문제  
에서 ‘경미한 수준의 문제 집단’으로 분류된 계  
층의 경우, 유아는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  
이 평균보다 다소 높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  
내력은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어머니의 기질 양상도 이와 유사하였  
지만 특히 위험회피 기질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었다. 이  
러한 결과는 높은 위험회피 기질이 내재화 문  
제와 관련된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인 동시에 낮은 사회적 민감성  
과 인내력 기질이 성격 발달에 불리하다는  
Cloninger 등(1994)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  
이기도 하다. 어머니의 높은 위험회피 성향은  
자녀의 사소한 문제도 예민하게 지각하고 실  
제보다 더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 우울이나 불  
안과 같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를 증폭시키  
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유아와 어머니가 모  
두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이 낮은 것은 안  
정적인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방해하고 문제  
해결상황에서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 유아를 위축시킬 수 있겠다. 반면, 외  
현화 문제에 대해서 ‘경미한 수준의 문제 집  
단’으로 분류된 계층을 살펴보면 유아와 어  
머니 모두 자극추구 기질이 나머지 세 집  
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내재화  
문제에서와는 달리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  
이 해석될 수 있겠다. ‘경미한 수준의 문제  
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보다 유아와 어머니  
의 자극추구 성향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  
구하고 이 집단에 속한 유아들이 ‘심각한 수  
준의 문제 집단’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이 외현화 문제와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  
으로 알려진 자극추구 성향의 위협을 완  
충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집단에  
속한 어머니들의 인내력 기질이 ‘낮은 수  
준의 문제 집단’에 속한 어머니들의 인  
내력만큼이나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유아의 행동적인 문제  
(예: 주의산만, 반항행동, 공격성 등)  
에 대해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통제를 발휘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  
다. 즉, 외현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머니  
의 높은 인내력 기질이 문제의 심각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보호적인 특성이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내재화 문제에서 ‘심각한 수  
준의 문제 집단’으로 분류된 계층의 경우,  
유아는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성향이 현저  
히 높았으며 어머니는 다른 세 집단보다  
자극추구 성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비록 선행 연구들에서 내재화 문제  
는 위험회피 기질과 가장 높은 상관관  
계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자  
극추구 기질 역시 유아의 내재화 문제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강지현, 2009; 이정숙, 문보경,  
2010). 이는 유아기의 내재화 문제가  
외현화 문제와 뚜렷하게 구별될 만큼  
충분히 분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일  
부 시사하며, 실제로 문제행동 전반에  
대한 고위험 집단에 속하는 유아들의 경  
우 내재화

문제가 외현화 문제와 공존(comorbid)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강지현, 2009) 이같은 기질 프로파일을 보이는 것이 부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내재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집단에 속한 어머니들이 자극추구 기질이 가장 높았던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어머니가 자극추구 성향이 강한 경우 자녀의 행동에 대해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며 자녀가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머니를 둔 유아들은 쉽게 위축되고 본인의 취약한 기질로 인한 내재화 문제들이 더욱 공고화될 수 있겠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계층에 속한 유아와 어머니들의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수준이 '평균 수준의 문제 집단'과 '경미한 수준의 문제 집단'의 수준보다 대부분 높거나 일부 유사하였다는 점이다. 높은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이 통상적으로 적응에 유리한 기질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다소 의외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단, 유아와 어머니 모두 자극추구 기질과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동시에 높은 경우, 상대방의 욕구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관심이 있으며 이는 다시 서로에 대한 관심 끌기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외현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의 문제 집단'으로 분류된 계층을 살펴보면 유아는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이 가장 낮았다. 또한 이 집단에 속한 어머니들은 위험회피 기질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 집단에 속한 유아의 기질 프로파일은 Cloninger 등(1994)이 주장한대로 성격 발달에 가장 불리한 기질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Rettew 등(2008)의 연구에서도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이 매우 높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이 매우 낮았던 '취약한(disengaged)' 유형의 프로파일을 가진 아동들이 외현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집단에 속한 어머니들은 위험회피 기질이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내재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집단에 속한 어머니들이 자극추구 성향이 높았던 것과 달리 외현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집단에 속한 어머니들은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높은 자극추구 성향이 유아를 더욱 위축시키는데 일조한다면 반대로 어머니의 높은 위험회피 성향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외현화 문제를 실제보다 더욱 위협적으로 느끼고 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기 쉽다. 즉, 자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느끼고 쉽게 지침으로써 자녀의 외현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집단의 어머니들은 인내력도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갖기 어렵다. 박진아, 이경숙, 신의진(2008)의 연구에서도 외현화 장애 유아의 경우 어머니가 둔감하고 반응적이지 못한 경우에만 유아의 자극추구 기질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쳤으며, 내재화 장애 유아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침해적인 경우에만 유아의 위험회피 기질이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쳤다. 요약하면, 유아의 심각한 내재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높은 자극추구 기질이, 유아의 심각한 외현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높은 위험회피 기질이 각각 자녀

의 문제행동을 더욱 악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한 취약성으로 작용하는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프로파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취약한 기질을 가진 유아와 어머니에게 어떠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심각한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유아의 경우 자극추구와 위협회피 기질이 매우 높았다. Cloninger의 이론과 실제 임상 관찰에 따르면, 자극추구와 위협회피 기질이 모두 높은 사람은 접근-회피 갈등을 경험하기 쉽고, 자극추구를 통한 만족과 위협회피를 통한 안전의 두 가지 상반된 욕구를 일상 생활에서 함께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불쾌하고 우울한 기분을 느끼기 쉽다(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따라서 이러한 기질 프로파일을 보이는 유아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심리적인 문제를 많이 겪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본인의 기질적 성향을 점차 조절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유아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어머니들에게는 높은 자극추구 성향으로 인한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스스로 통제하고 효과적인 양육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Cloninger 등(1994)의 기질 및 성격 모델에 따르면, 기질에 의한 개인의 자극-반응 특성은 성격 발달의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자극추구 성향이 강한 어머니라도 얼마든지 성격 발달의 정도에 따라 본인의 취약한 기질 특성에 따른 자동적인 반응 및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내용의 예방적 교육이 어머니들에게 제공된다면 유아와 어머니 모두 보다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심각한 문제행동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심각한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유아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개입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각한 외현화 문제의 경우 내재화 문제와 비교할 때 유아의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기질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외현화 문제를 나타내는 유아들의 경우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상황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증진하고 문제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개별 기질 차원 혹은 그 이상의 기질 차원들이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를 얼마나 많이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수량적으로 알려주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와 관련되는 다양한 기질 프로파일의 유형을 구분하고 특히 심각한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프로파일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유아의 기질 평가가 어머니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양육자에 의한 평가는 양육자 본인의 특성이 결과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동기 이후 자기보고식 검사가 가능한 연령에서 기질 평가를 다시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CBCL의 문항과 기질 및 성격검사의 문항이 내용적인 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다. 이 같은 문제는 이전 연구들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므로 결과 해석 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Lemery, Essex, & Smider, 2002).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을 분석 시에 고려하지 않았다. JTCI 3-6의 표준화 데이터를 살펴보면, 4개의 기질 차원에서 남녀가 모두 비슷한 점수를 보이고 있다(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하지만,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남아와 여아가 서로 다른 기질 특성을 바탕으로 문제행동에 이르게 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이정숙, 문보경, 2010)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유아들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켜 성별에 따른 기질 프로파일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내재화 문제 집단에 포함된 유아가 25명, 심각한 수준의 외현화 문제 집단에 포함된 유아가 44명에 그쳐 추가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랐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은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변인으로서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유아의 문제행동은 단지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성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많은 환경적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유아의 문제행동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다양한 변인들(예: 양육자와 유아의 애착 관계, 양육자 본인의 심리적 특성 및 정신건강, 양육 환경 내에 존재하는 많은 스트레스 요인 등)이 모두 배제된 상태에서 단순히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패턴만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의 수준을 설명하는 것에는 상당한 한계가 따른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가 지나치게 과잉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유아와 어머니간 기질 패턴이 어떻게

환경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들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 절차를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다양한 유형의 유아-어머니 기질 패턴을 밝혀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은 유아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기질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와 그들의 어머니는 어떠한 기질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를 동시에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지현 (2009). 유아기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 유아의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8). 정서 및 행동장애 유아의 정신병리 유형에 따른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2), 523-545.
- 박현진, 이주영, 문경주, 권정혜 (2010).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이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25-44.
-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기질 및 성격검사 매뉴얼. 서울: (주)마음사랑.
- 서주현 (200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지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경자, 김영아 (2009). CBCL 1.5-5 유아행동

- 평가척도 부모용 매뉴얼. 서울: (주)휴노.
-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한국 유아 행동문제의 경향과 특성: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 53-73.
- 이정숙, 문보경 (2010). 유아의 기질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55-74.
- 이주영, 오경자 (2010). 청소년기 우울-비행 공존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및 성별의 효과: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53-72.
- 장유진, 이강이 (2011). 유아의 기질, 유아-어머니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자기지각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2(3), 59-76.
- 허미경, 이소은 (2010).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과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5(3), 353-373.
- Achenbach, T. M. (1992).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2-3 and 1992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hess, S., & Thomas A. (1996). *Temperament: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Brunner/Mazel.
- Cloninger, C. R. (1987). A systematic method of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73-588.
- Cloninger, C. R. (2004). *Feeling Good: The Science of Well-being*. New York: Oxford.
- Cloninger, C. R., Przybeck, T. R., Svrakic, D. M., & Wetzel, R. D.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St. Louis, Missouri.
- Constantino, J. N., Cloninger, C. R., Clarke, A. R., Hashemi, B., & Przybeck, T. (2002). Application of the seven-factor model of personality to early childhood. *Psychiatry Research*, 109, 229-243.
- Galambos, N. L., & Turner, P. K. (1999). Parent and adolescent temperaments and the quality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5(3), 493-511.
- Goth, K., Cloninger, C. R., & Schmeck, K. (2003a). *Das Junior Temperament und Charakter Inventar für das Kindergartenalter - JTICI/3-6*. Klinik für Psychiatrie und Psychotherapie des Kindes- und Jugendalters der der J. W. Goethe - Universität Frankfurt.
- Goth, K., Cloninger, C. R., & Schmeck, K. (2003b). *Das Temperament und Charakter Inventar Kurzversion für Erwachsene - TCI R Kurz*. Klinik für Psychiatrie und Psychotherapie des Kindes- und Jugendalters der der J. W. Goethe - Universität Frankfurt.
- Lemery, K. S., Essex, M. J., & Smider, N. A. (2002). Revealing the relation between temperament and behavior problem symptoms by eliminating measurement confounding:

- expert ratings and factor analysis. *Child Development*, 73, 867-882.
- Loken, E. (2004). Using latent class analysis to model temperament typ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4), 625-652.
- Luby, J. L., Svrakic, D. M., McCallum, K., Przybeck, T. R., & Cloninger, C. R. (1999).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Preliminary validation of a child self-report measure. *Psychological Report*, 84, 1127-1138.
- Mash, E. J., & Wolfe, D. A. (2002). *Abnormal child psychology*.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 McLachlan, G. J.,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New York: Wiley.
- Mesman, J., & Koot, H. M. (2001). Early preschool predictors of pre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DSM-IV diagnos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1029-1036.
- Muthen, B. O.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Growth mixture modeling and related techniques for longitudinal data. In D. Kaplan (Ed.),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pp. 345-368). New York: Sage.
- Muthen, L. K., & Muthen, B. O. (1998-2009). *Mplus User's Guide. Fifth Edition*. Los Angeles, CA: Muthen & Muthen.
- Muthen, L. K., & Muthen, B. O.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 882-891.
- Nigg, J. T., & Hinshaw, S. P. (1998). Parent personality traits and psychopathology associated with antisocial behaviors in childhoo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 145-159.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en, B.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 35-569.
- Partridge, T., & Lerner, J. V. (2007). A latent growth-curve approach to difficult temperament.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6, 255-265.
- Rettew, D. C., Althoff, R. R., Dumenci, L., Ayer, L., & Hudziak, J. J. (2008). Latent profiles of temperament and their relations to psychopathology and wellnes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7(3), 273-281.
- Rettew, D. C., Stanger, C., McKee, L., Doyle, A., & Hudziak, J. J. (2006). Interactions between child and parent temperament and child behavior problems. *Comprehensive Psychiatry*, 47, 412-420.
- Rothbart, M.,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105-176). New York: Wiley.
- Ruchkin, V. V., Eisemann, M., & Cloninger, C. R. (1998). Behaviour/emotional problems in male juvenile delinquents and controls in Russia: the role of personality traits. *Acta Psychiatrica*

- Scandinavica*, 98, 231-236.
- Schmeck, K., & Poustka, F. (2001). Temperament and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Psychopathology*, 34, 159-163.
- Shaw, D. S., Winslow, E. B., & Flanagan, C. (1999). A prospective study of the effects of marital status and family relations on young children's adjustment among African and Caucasi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 742-755.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van den Akker, A. L., Dekovic, M., Prinzie, P., & Asscher, J. J. (2010). Toddlers' temperament profiles: stability and relations to negative and positive parent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 485-495.
- Warner, M. B., Morey, L. C., Finch, J. F., Gunderson, J. G., Skodol, A. E., Sanislow, C. A., Shea, M. T., McGlashan, T. H., & Grilo, C. M. (2004).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raits and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3, 217-227.
- 원고접수일 : 2012. 2. 1.  
1차 수정 원고접수일 : 2012. 6. 5.  
게재결정일 : 2012. 7. 18.

## **Tes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nd mother's temperaments and child's behavioral problems**

**Joo-Young Le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hild and mother's temperamental profiles related to the child'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rough latent profile analysis. A total of 282 preschoolers were recruited and their mothers evaluated children's temperaments and behavioral problems along with their own temperaments. For both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our latent classes were identified: "little problem", "average problem", "mild problem", and "severe problem". Children in the severe internalizing problem class had high novelty seeking, high harm avoidance, and high reward dependence while their mothers had high novelty seeking tendency. Children in the severe externalizing problem class had high novelty seeking, high harm avoidance, low reward dependence, and low persistence while their mothers had high harm avoidance tendency. This study explicitly shows child and mother's vulnerable temperamental profiles related to child's behavioral problems, and it provides an implication for possible prevention strategies.

*Key words : child temperament, mother temperament, internalizing, externalizing, latent profile analysis*